

12-09 (통권 제 510호)

2012. 10. 8.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VIP REPORT

■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점검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	2
3. 시사점 .....	8
< 별첨 > 공기업 부채 규모 .....	10

■ HRI 경제 지표 .....	12
-------------------	----

## &lt; 요약 &gt;

## ■ 개요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비정부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는 총 508조원으로 정부(지방 포함) 부채 총액인 42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정부 지정 28개) 부채는 36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 분석(2003년~2011년)이 가능한 1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첫째,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1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3년 99%에서 2011년 208%로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잠재적 위험군인 부채비율 150%이상 공기업이 증가하였다('04년 0개 → '11년 4개). 이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이 '11년 500억 원(2004년 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둘째,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공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년도 음(-)에 머물렀으며, 취약한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분석 기간 중 3분의 1로 급락하였다. 셋째, 분석 대상 공기업의 3분의 2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로 측정한 공기업의 이자 지급능력은 '11년 평균 1.8배(민간 제조업 평균 8배)에 불과하여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알트만 K-1'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18개 공기업 중 최대 67%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합 평가 결과 공기업의 급격한 안정성 및 수익구조 저하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목 GDP에 대한 공기업(18개) 부채의 비중은 2003년 12%에서 2011년 25%로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분석 기간 공기업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정부부채의 14%, 가계부채의 9%, 기업부채의 7%를 초과하고 있다.

## ■ 시사점

첫째, 정부 부채와 함께 공기업 등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기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무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기업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정부 지원가능성과 공기업 자체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 1. 개요

-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급증으로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
  -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문의 국가채무는 421조원 규모
  - 공기업, 준공공기관 등 288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비정부 공공부문의 2011년말 총부채 규모는 508조원으로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을 상회
  - 특히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정부 지정 28개) 부채는 361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 및 부실 가능성을 분석<sup>1)</sup>
  - 분석 대상 : 정부 지정 총 28개 공기업 중 증장기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한 18개 공기업 (분석 대상 18개 공기업의 부채는 313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87%,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의 62% 비중)
  - 분석 기간 : 2003년~2011년 (연간 자료 활용)

### < 참고 > 분석 대상 제외 공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 6개 자회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철도공사는 자료의 제약으로 제외
- 공기업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IFRS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회계기준 변경에 유의할 필요<sup>2)</sup>.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

1) 공기업은 공기업(28개)은 임직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뉨. 시장형 공기업은 총 14개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 준시장형 공기업은 14개로 시장형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2) <별첨>을 참조하면 2010년 K-GAAP와 IFRS의 부채규모는 각각 259조원과 276조원으로 17조원 차이 발생.

## 2.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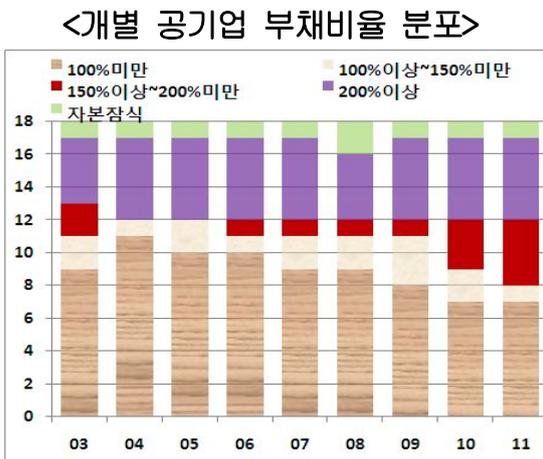
### 1) 재무건전성 분석

#### - 전반적인 부채비율 증가 및 재무 건전성 악화 공기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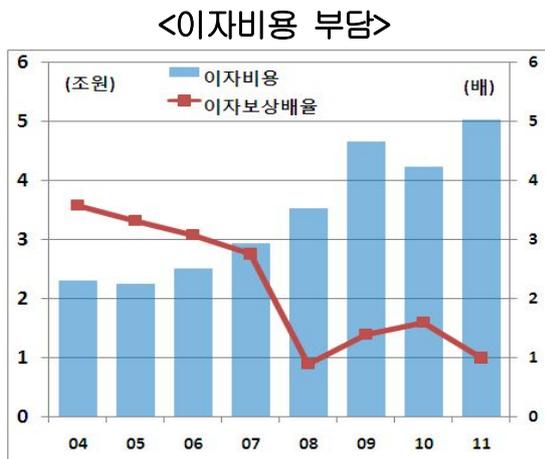
- 18개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03년(99%)~2011년(208%) 2배 이상 증가
-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은 감소하고 있고(부채비율 100% 미만 2004년 11개, 2011년 7개), 잠재적 위험군인 공기업은 증가(2004년 0개, 2011년 4개)
  - \*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부채비율이 150%이상~200%미만인 경우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전제

#### - 공기업의 부채 중 금리부 부채<sup>3)</sup> 규모 확대로 이자비용<sup>4)</sup> 부담이 증가

- 금리부 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말 212조원 기록
- 전체 이자비용은 2004년 약 2조원 규모였으나 2011년에는 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이 2004년 3.6배에서 2011년 1.0배 수준으로 하락



자료: 개별 공기업 회계감사보고서.



자료: 개별 공기업 회계감사보고서.

주: 18개 공기업 부채액을 합산하여 계산.

3) 2003년 18개 공기업 금리부 부채 총합을 구하기 위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금리부 부채액은 국회에 산정책처 자료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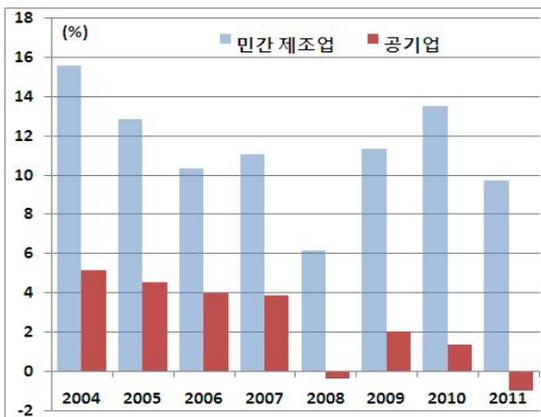
4) 2003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이자비용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자료를 사용함.

2) 수익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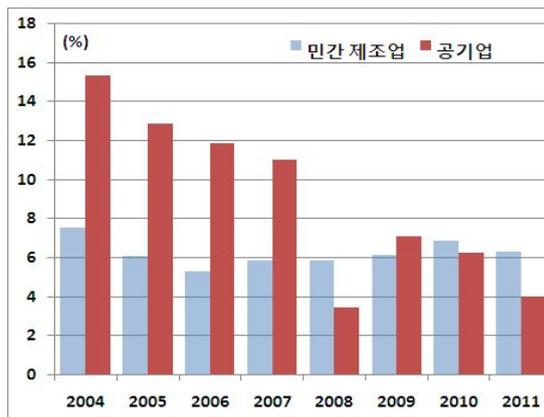
○ 자기자본이익률(ROE)<sup>5)</sup> 및 영업이익률<sup>6)</sup> 분석

- (ROE) 분석 대상 18개 공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민간 기업(제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공기업의 ROE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0.97% 기록
  - 민간 기업과 수익률 격차는 2008년 6.5%p에서 2010년 이후 10.0%p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영업이익률)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민간 기업과 역전 현상이 일어남
  - 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분석기간 중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급락(2004년 15% → 2011년 4%)
  - 민간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2010년 이후 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초과

<공기업과 민간 제조업 ROE>



<공기업과 민간 제조업 영업이익률>



자료: 개별 공기업(18개) 회계감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2011년도 제조업 ROE,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속보) 보도자료 참조.

5)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 / 연평균 자기자본  
 6)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ROE 분석(듀퐁 분석)을 통한 수익성 평가

- 분석 대상 1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 일반적인 경영 여건 상 부채비율의 증가는 ROE의 증가를 유발해야 하지만 공기업은 반대로 ROE가 지속적으로 하락
  -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총자산 회전율은 거의 일정 수준 유지
  -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1%에 불과
- 공기업은 ROE를 구성하는 매출액순이익률(수익성), 부채비율(안정성) 측면에서 민간 제조업보다 취약한 구조를 보유
  - 공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008년 이후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격차 또한 증가
  - 이에 반해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평균 300%를 넘고 있어 ROE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공기업 ROE 분석(18개 평균)>

	ROE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1+부채비율
04	5.2%	8.8%	0.29회	201%
05	4.5%	7.5%	0.29회	203%
06	4.0%	6.3%	0.30회	213%
07	3.9%	5.8%	0.30회	227%
08	-0.4%	-0.5%	0.32회	249%
09	2.0%	2.6%	0.28회	277%
10	1.4%	1.6%	0.29회	297%
11	-1.0%	-1.1%	0.29회	308%

<민간 제조업 ROE 분석>

	ROE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1+부채비율
04	15.6%	6.2%	1.20회	211%
05	12.9%	5.3%	1.20회	204%
06	10.4%	4.5%	1.17회	199%
07	11.1%	4.9%	1.15회	198%
08	6.1%	2.4%	1.18회	215%
09	11.3%	4.9%	1.07회	217%
10	13.5%	5.8%	1.13회	205%
11	9.7%	5.0%	1.06회	185%

자료: 개별 공기업(18개) 회계산정책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2011년도 제조업 ROE, 매출액순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속보) 보도자료 참조.

7) ROE 분석(듀퐁 분석)은 계산식을 대표적인 재무비율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ROE = (\text{당기순이익} / \text{매출액}) \times (\text{매출액} / \text{연평균 총자산}) \times (\text{연평균 총자산} / \text{연평균 자기자본}) = \text{매출액순이익률} \times \text{총자산회전율} \times (1+\text{부채비율})$  로 분해 가능.

3) 부실화 가능성 분석

○ 재무비율에 의한 채무 상환능력 분석

- (차입금 의존도<sup>8)</sup>) 18개 공기업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50%에 육박
  - 2003년(35%)에서 2007년(38%)까지는 3%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07년 이후 2010년(51%)까지 높은 증가세(13%p)를 유지한 후 2011년(46%)에 소폭 하락
- (유동비율<sup>9)</sup> 및 당좌비율<sup>10)</sup>) 유동비율은 공기업이 높은 반면 유동성이 낮은 채고자산을 제외한 당좌비율은 민간 제조업이 높은 수준 유지
  - 연도별 유동비율 : 공기업(130%~170%), 민간 제조업(110%~120%)
  - 연도별 당좌비율 : 공기업(70% 이하), 민간 제조업(80% 이상)
- (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sup>11)</sup>)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의한 이자지급능력에서 공기업은 민간 제조업의 4분의 1수준에 불과
  - 공기업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8배에 불과 (민간 제조업 평균 8배)

<공기업(18개) 평균 주요 재무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03	35%	137%	69%	
04	36%	159%	65%	2.3배
05	35%	166%	72%	5.8배
06	38%	173%	58%	1.7배
07	38%	184%	57%	3.7배
08	43%	177%	57%	0.0배
09	47%	173%	44%	1.7배
10	51%	172%	36%	1.1배
11	46%	174%	50%	1.8배

<민간 제조업 평균 주요 재무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03	28%	110%	81%	6.5배
04	24%	117%	85%	9.7배
05	23%	121%	90%	8.5배
06	22%	121%	90%	8.5배
07	23%	121%	91%	8.9배
08	26%	113%	83%	6.0배
09	26%	121%	93%	6.9배
10	25%	121%	90%	7.8배
11	22%	121%	89%	8.2배

자료: 개별 공기업(18개) 회계감사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2011년도 제조업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속보) 보도자료 참조.

8)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회사채) / 총자본 의미.

9)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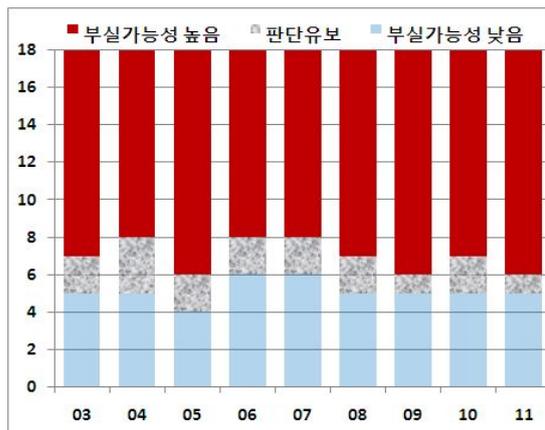
10)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의미.

11) 영업활동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 (영업활동현금흐름 + 이자비용) / 이자비용 의미.

○ 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진단 : Altman K-1 모형 이용

- 알트만(Altman) 등<sup>12)</sup>은 국내 기업(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Altman K-1' 모형을 개발<sup>13)</sup>
  - 매출액, 총자산, 총부채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들을 변수로 사용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8개 공기업에 대해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3분의 2의 기업들이 부실화 가능성에 노출
  - 분석기간 동안 최소 56%에서 최대 67%의 공기업들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됨

< 개별 공기업(18개) 분석 결과 >



<Altman K-1 모형>

(모형)  $K_1 = -17.862 + 1.472X_1 + 3.041X_2 + 14.839X_3 + 1.516X_4$

(변수)  $X_1$  : ln(총자산)  
 $X_2$  : ln(매출액/총자산)  
 $X_3$  : 이익잉여금 / 총자산  
 $X_4$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 총부채

(판단기준)  $K_1 > 0.75$  : 부실가능성 낮음  
 $-2.0 \leq K_1 \leq 0.75$  : 판단유보  
 $K_1 < -2.0$  : 부실가능성 높음

자료: 개별 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활용

12) Altman, E.I., Y.H. Eom and D.W. Kim, "Failure Prediction: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1995.

13) Altman K-1 모형은 Altman Z-score 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구한 모형임. Altman Z-score 모형은 다음과 같음

(모형)  $Z = 1.2X_1 + 1.4X_2 + 3.3X_3 + 0.6X_4 + 1.0X_5$

(변수)  $X_1$  : 순운전자본/총자산,  $X_2$  : 이익잉여금/총자산,  $X_3$  : 영업이익/총자산  
 $X_4$  : 자기자본 시장가치/총부채 장부가치,  $X_5$  : 매출액/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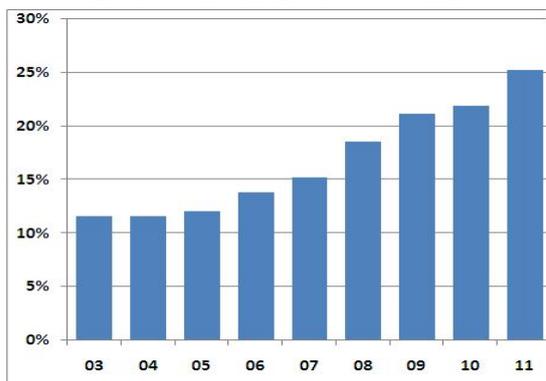
(판단기준)  $Z > 2.99$  : 부실가능성 낮음,  $1.81 \leq Z \leq 2.99$  : 판단유보,  $Z < 1.81$  : 높음

Altman, E. I.,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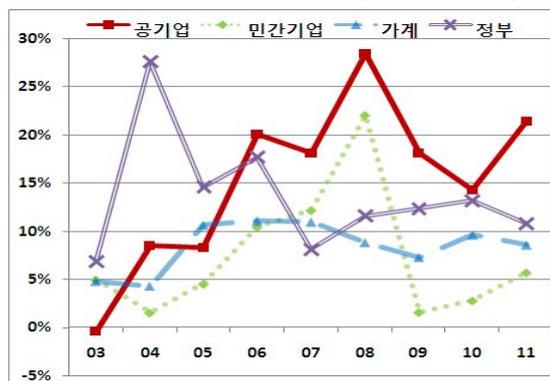
4) 종합 평가

- 공기업은 최근 수년간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분석 대상(18개)의 최대 70%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분석대상 18개 공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이 '11년 5조원(2004년 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군인 부채비율 150% 이상의 공기업이 증가
  - ROE는 적자 전환,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초반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
  - 부실화 가능성 진단(Altman K-1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18개 공기업의 최대 67%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으로 작용
  - 명목 GDP에 대한 공기업(18개) 부채의 비중은 2003년 12%에서 2011년 25%로 2배 이상 상승
  - 분석 기간 공기업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정부부채의 14%, 가계부채의 9%, 기업부채의 7%를 초과
    - \* 2003년 : 공기업 부채는 가계부채의 16%, 민간기업 부채의 10% 비중
    - \* 2011년 : 가계부채의 28%, 민간기업 부채의 17%로 증가

<공기업 부채/명목 GDP 비중>



<각 부문별 부채 증가율(전년 대비)>



자료: 개별 공기업 회계감사보고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주: 1) 공기업 부채는 분석 대상 18개 기업 부채액 합산

2) 가계부채는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3) 기업부채는 민간법인기업 및 비법인기업을 포함하며 주식과 출자지분 제거하고 산출

### 3. 시사점

**첫째,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대규모 정책 사업 시행시 사전에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 공기업이 정부를 믿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정보 공개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한 감시 기능 강화
- 공기업이 부채상환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성공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하여 세금감면, 정부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둘째,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공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
- 외부자금 조달시 부채계약(debt covenant)체결을 유도하여 특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제고
- 목표 부채비율 관리,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 총액 비용 관리 등 재무구조 및 수익성 관리시스템을 효율화
- 무수익 자산 매각, 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성 제거 등 최대한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 요구

셋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공기업의 임무 수행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① 시장실패가 존재하여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공부문이 담당한다면 공기업이 적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요구
- 예를 들어 민영주택 공급과 같이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잘 할 수 있고, 공익성과도 관계가 없는 사업부문은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
- 한편 저소득층 주택 지원 등 공익성과 관련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부채기준 적용

넷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안정성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와 공기업 자체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 현재 공기업의 재무 안정성 평가시 공기업 자체의 부채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공기업의 신용등급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가 우발채무로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인식할 필요
- 대기업 계열사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신용 평가하려는 움직임과 같이 공기업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가능성과 관계없이 자체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 **HRI**

백흥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2072-6228)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 별첨 > 공기업 부채 규모(K-IFRS 기준)

(단위: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석탄공사	1.3	1.4
여수광양항만공사	1.1	1.0
인천국제공항공사	3.4	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3	0.5
가스공사	22.3	28.0
한국감정원	0.3	0.4
한국공항공사	0.3	0.3
관광공사	0.6	0.5
광물자원공사	1.5	2.2
도로공사	23.7	24.6
마사회	0.3	0.3
방송광고공사	0.7	0.8
석유공사	15.9	20.8
수자원공사	8.1	12.6
한국전력	72.2	82.7
조폐공사	0.1	0.1
지역난방공사	2.8	3.2
토지주택공사	121.5	130.6
공기업(18개)총합	276.4	313.0

자료: 개별 공기업 회계감사보고서.

## HRI 經濟 指標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6.3	4.2	3.5	3.6	3.3	3.6	2.8	2.3	—	
	민간소비(%)	4.4	2.9	3.0	2.1	1.1	2.3	1.6	1.1	—	
	건설투자(%)	-3.7	-11.0	-4.2	-4.0	-2.1	-5.0	1.5	-2.1	—	
	설비투자(%)	25.7	10.3	7.7	1.2	-3.3	3.7	8.6	-3.5	—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	294	26	55	69	115	265	26	112	—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412	70	83	63	92	308	14	94	79
		수출(억 \$)	4,664	1,310	1,426	1,413	1,404	5,552	1,349	1,402	1,333
		증감률(%)	(28.3)	(29.6)	(18.6)	(21.4)	(9.0)	(19.0)	(3.0)	(-1.7)	(-5.6)
		수입(억 \$)	4,252	1,239	1,343	1,349	1,313	5,244	1,335	1,308	1,254
증감률(%)	(31.6)	(26.2)	(27.1)	(27.6)	(13.4)	(23.3)	(7.7)	(-2.6)	(-7.1)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3.8	4.0	4.3	4.0	4.0	3.0	2.4	1.6	
실업률(%)		3.7	4.2	3.4	3.1	2.9	3.4	3.8	3.3	—	
국고채금리(3년, 평균, %)		3.7	3.8	3.7	3.6	3.4	3.6	3.5	3.4	2.9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131	1,152	1,133	